

수출규제 관련 일일동향(9.18)

1. 백색국가 제외 조치 관련

□ [한국 정부 동향]

-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18일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의 시행을 발표¹⁾

□ [일본 정부 동향]

- (경제산업성) 스가와라(菅原) 경제산업성 장관은 18일 한국 정부의 결정에 “매우 유감”이라고 하면서, “경제산업성은 한국의 수출관리당국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에 대한 설명 책임을 충분히 이행하도록 요구할 것”이라는 담화문을 발표²⁾

○ 경제산업성은 한국 정부가 8월 12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이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그 판단 근거의 경위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한국 측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지 못한 채 이 조치가 시행된 것에 유감스럽다고 하였음.

- (내각부) 스가(菅) 관방장관은 18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달(8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그 근거 및 상세한 내용을 논의하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했다. 매우 유감이다”라고 비판³⁾

□ [일본 언론 동향]

- 일본 언론들은 한국 정부의 백색국가 제외 방침과 관련,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사실상의 대항조치라고 평가⁴⁾

1)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019-154호)」 (2019. 9. 18).

2) 経済産業省, 「韓国政府による日本向け輸出管理の強化について」, 홈페이지: <https://www.meti.go.jp/speeches/danwa/2019/20190918001.html> (검색일: 2019. 9. 18)

3) 「韓国が輸出管理優遇 日本を除外 菅官房長官「極めて遺憾」」 『NHK NEWS WEB』 (2019. 9. 18).

4) 「韓国、輸出優遇から日本除外」 『朝日新聞』 (2019. 9. 18). 및 「韓国：日本の優遇除外、施行 韓国も輸出規制強化」 『毎日新聞』 (2019. 9. 18). 및 「優遇国から日本除外 韓国、事実上の対抗措置」 『産経新聞』 (2019. 9. 18).

- 한편 DRAM 등 반도체 메모리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당분간 일본 기업이 받을 영향은 경미하다고 보는 견해도 존재⁵⁾

□ [일본 기업 동향]

- 한국산 등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出光興産)은 수입에 차질을 빚을 경우 등유가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그럴 경우 대체 조달처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⁶⁾

2. 한일 갈등이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 관련

□ [일본 언론 동향]

- 닛케이는 한일 양국이 서로에 대한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자동차 업계에서 부품을 미리 구입, 재고를 쌓아두려는 움직임이 양국 간에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⁷⁾

○ 보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일본의 복수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게 수출을 늘려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닛케이는 현대자동차가 향후 수출관리 강화에 따른 수입 차질 가능성을 우려하여 3개월 분량의 재고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수출 물량 증대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함.

○ 텐소 등 자동차 부품 납품업체들은 현대자동차의 요청에 따라 전자부품의 수출을 늘리는 등 대응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한 자동차 업체는 한국의 부품 제조업체로부터 열쇠 기구의 부품을 수입하고 있어서, 한국 정부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8월부터 2~3개월분의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 수입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5) 「輸出優遇から日本除外 韓国、事実上の対抗措置」 『静岡新聞』(2019. 9. 18). 및 「日韓対立、車部品に波及一韓国、きょうから日本除外、半導体メモリーは回避。」 『日本経済新聞』(2019. 9. 18).

6) 각주 5의 닛케이와 동일 출처.

7) 「日韓対立、車部品に波及、両国メーカーが在庫積み増やし。」 『日本経済新聞』(2019. 9. 18).